

漢代の 기록을 중심으로 한 方領에 관한 연구

이 동 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시간강사

A Study on Bangnyeong in Focused on Records during Han Period

Dong-A Lee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4. 2. 27. 접수; 2014. 4. 4. 수정; 2014. 4. 7. 채택)

Abstract

Bangnyeong generally means rectangular collars at present.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Bangnyeong in different shapes besides rectangular shape in ancient times, but there is no accurate evidence. The dispute on the shape of Bangnyeong started with the records in Yegi(禮記) and Simui written during Zhou period, China, the oldest records on Bangnyeong. However, there are no remains or paintings(pictorial data) accurately proving the different shapes of Bangnyeong. While the new shape of Gokgeop(collar of Simui) was mentioned by Zhu Xi during Song period, it was not accurately verified.

There are almost no literature, excavated objects or pictorial data on the shapes of Bangnyeong which are not definitely identified. The shape of Bangnyeong is identified to a certain extent by objects excavated or pictorial data during Yuan and Ming period.

There will be definite reasons why Zhou Xibao and Hua Mei, the scholars in China, the y-shaped collar rolled on the chest among the objects excavated during Warring States Period as Bangnyeong or Guryeong. Thus, this paper investigated the notes and description in Yegijeongui(禮記正義) and the records and notes during the Han period which are mentioned most frequently except Yegi among the records on Bangnyeong. Accordingly, this paper identified that there are different shapes of Bangnyeong except rectangular shape during the Han period. It is estimated that Bangnyeong at that time had symmetric collars, the collars of Jikryeong which are not overlapped. The collar section after the neck section was straight. It was also said that Bangnyeong was women's clothing. In other words, Bangnyeong in the Han period suggests that the collar of Jikryeong was Bangnyeong.

As discussed above, Bangnyeong has the long history and different meanings by period.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accurately define Bangnyeong because there are almost no records on it. Nevertheless, Bangnyeong will be discussed more in further study.

Key Words: Bangnyeong(방령), Jikryeong(직령), Gokgeop(곡겹), Yegijeongui(禮記正義), the women's clothing(여성의복)

I. 서 론

방령(方領)이라는 것의 형태는 현재 일반적으로

로 네모난 사각형을 일컫고 있으며, 이는 주대(周代)의 출토인물상 그리고 원대(元代)와 명대(明代)의 출토품, 회화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Corresponding author ; Dong-A Lee

Fax. +82-02-511-6632

E-mail : dawn-a@hanmail.net

수 있다. 그러나 원대(元代)이전에는 방령의 형태, 착용자 신분, 신분에 따른 형태, 형태의 변화 과정등 문헌, 출토품, 회화자료가 거의 없어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 이외에 다른 형태가 있었다.

방령(方領)에 대한 최고(最古)의 기록은 주대(周代)의 『예기(禮記)』 권39 「심의(深衣)」 편에서 시작을 하며, 그 내용은 “曲袷如矩以應方” 즉, “곡겹(曲袷=깃)은 구(矩)와 같아서 방(方)에 응한다.”라는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물이나 도본이 없어 정확한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우나 기록에 ‘방(方)’이라는 글자와 당시의 출토인물상을 통해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로 알려져 있다.

이후 방령에 관한 문헌으로는 한대(漢代)의 기록과 『예기정의(禮記正義)』 (『예기(禮記)』의 기록에 대한 주(注)와 소(疏))를 통해 단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나 유물이나 정확한 설명이 없어 그 형태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대(漢代)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방령은 현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태는 현재 선행연구(홍나영, 1999a; 이민주, 최은수, 2007; 김미정, 2009; 김숙아, 2010a)에서 송대(宋代) 주자(朱子)가 『예기(禮記)』 심의(深衣)편에 곡겹(曲袷, 심의의 깃)에 관한 새로운 주장과 함께 도본(圖本)을 제시한 형태로 파악되고 있으나 정확히 알려진 바는 아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자대전(朱子大全)』 권69 잡서(雜書) 심의제도(深衣制度)에 “方領 兩

襟相掩, 衽在腋下, 則兩領之會自方.” 즉, “방령(方領)은 두 깃을 겨드랑이 아래에 있게 하여 서로 겹쳐지면 목둘레가 자연스럽게 방(力)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심의의 곡겹(曲袷 : 심의의 깃)에 관한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도본(圖本)을 보면, 직령(直領)을 깊게 여미었을 때 뒷중심선이 모가나게 되고 목둘레선은 마름모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에 후대(後代)의 진호(陳澧)는 『예기집설(禮記集說)』에 “袷, 交領也. 衣領既交, 自有如矩之象.”이라고 하였으며, 황중희(黃宗羲)는 『심의고(深衣考)』에 “曲袷如矩以應方 : 曲袷 : 方領, 兩襟相掩, 衽在腋下, 則兩領之會自方.”이라 하였다. 이들 모두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주자의 설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시기의 명대(明代) 정릉(定陵) 출토복식과 회화자료들은 모두 네모난 사각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주자성리학의 영향으로 심의(深衣)는 유학자들에게 중요한 의복으로 여겨져 심의(深衣)에 대한 기록은 많으나 그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주자가 제시한 심의(深衣)의 깃인 곡겹(曲袷)의 형태가 의복을 만들었을 때 옷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은 주자(朱子)에 대한 도전이라 여겨져 대부분 주자(朱子)가 제시한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조선 후기 실학자 구암 한백겸(久菴 韓百謙)을 시작으로 실학자들 사이에서 심의(深衣)의 곡겹 형태를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로 새롭게 제시를 하였고, 유형원(柳馨遠)은 당시 방령의복의 형태도 네모난 사각형의 형태임을 언급하며,



<그림 1>
육인인물상 서주-감숙성 영태 백초파
출토 출처:中國古代服飾研究(1981), p.37.



<그림 2>
청동인물상 서주-하남성 낙양방기구
출토 출처:中國織繡服飾全集3(2004), p.12.



<그림 3>
육인인물상 서주-하남성 낙양동고 출토
출처:中國古代服飾研究(1981), p.33.

구암 한백겸(久菴 韓百謙)의 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방령출토복식과 회화자료를 통해서도 방령은 네모난 사각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주자가 제시한 방령의 형태는 심의(深衣)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두 통용이 된 형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방령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 네모난 사각형 형태 이외에 주자가 제시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도 대부분 한대(漢代) 기록과 『예기정의(禮記正義)』의 내용을 통해 고대 방령(方領)은 주자가 제시한 형태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출토품 중 인물상이 입고 있는 의복의 깃 형태가 y형으로 꺾이어 내려간 것을 주석보(周錫保, 1986a)는 방령(方領)으로, 화매(華梅, 1992a)는 구령(矩領)으로 명명하였던(이동아, 2014a) 것과 한대(漢代)의 기록을 다시 고찰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고대 방령 형태 중 주자가 제시한 형태와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본 연구자는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時期) 출토품의 인물상을 살펴보고, 한대(漢代)의 기록과 『예기정의(禮記正義)』를 중심으로 방령(方領)이라는 깃의 형태가 현재 주자(朱子)에서부터 고찰되어진 형태 이외의 다른 형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주대(周代)의 출토품

1. 서주(西周)

주대(周代)의 출토품에서 나타난 방령(方領)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보인다.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고찰되어진 형태로 <그림 1, 2, 3>과 같다. 모두 서주시기의 출토품으로 관(冠)을 쓰고 좁은 소매에 폐슬을 하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는 구령곡거(矩領曲裾)로, <그림 3>은 방령곡거(方領曲裾)(常沙娜

編, 2004a)로 설명되어 있다. 구(矩)와 방(方)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 모두 방령(方領)으로 판단되며, 주대(周代)의 방령(方領)은 여미어지는 교령(交領)의 형태이다.

2. 춘추전국(春秋戰國)

<그림 4, 5>의 깃 형태는 y로 가슴부분에서 꺾이어 내려갔으며, 교령이다. 이 옥인인물상의 복의 깃 형태에 대해 주석보(周錫保, 1986b)는 상의하상(上衣下裳)식으로 호복(胡服)이며, 깃 형태에 대해 방령(方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매(華梅, 1992b) 또한 호복(胡服)이라 지칭하고 이들 복식의 깃 형태를 구령(矩領)이라고 하였다.

직령(直領)의 깃이 가슴부분에서 완전히 꺾여 직각으로 내려간 부분을 구(矩), 방(方)으로 본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형태는(그림 1, 2, 3) 인물상의 방령 형태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와 같이 변화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되었거나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III. 한대(漢代)의 기록과 출토품

1. 전한서(前漢書)

대표적인 기록인 한대(漢代)의 정사(正史) 중 『전한서(前漢書)』 卷 53 「경십삼왕전(景十三王傳)」의 광천혜왕월(廣川惠王越)에 나타난 방령(方領)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時愛爲去刺方領繡，去取燒之。愛恐，自投井。出之未死...”

“당시 영애(榮愛)가 유거(劉去)의 방령(方領)에 수를 놓아주었고, 유거는 이것을 받아 태웠다. 영애는 겁을 먹고 스스로 우물에 뛰어들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이 기록 중 ‘영애는 유거의 방령에 수를 놓아주었고’라는 부분에 대한 주(注)에는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그림 4>
남성 도용전형(좌, 중) 춘추전국-山西省侯馬牛村出土 / 남성 청동제 무인(우)
춘추전국-山西省長治分水嶺出土 출처: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p.65. /
中國古代的服飾研究 增補版. (1995). p.39.



<그림 5>
옥인인물상춘추전국-这种发饰与滇族
晋宁石寨山出土 출처: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p.70.

“服虔曰：如今小兒卻襲衣也。頸下施衿，領正方直。”

“지금 어린 아이가 옷을 뒤집어 입은 것과 같다. 목 아래에 깃(衿)은 령(領)이 곧게 내려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달려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홍나영(1999b)은 방령(方領)을 깃이 목 아래에서 정방을 이루며 곧게 내려가는 네모난 깃이라고 설명하였고, 김소현(2003)은 방령(方領)이란 방형(方形)으로 교차되는 교령(交領)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김숙아(2010b)는 방령(方領)은 직령(直領)을 교령으로 입었을 때 형성되는 ‘모난 깃’으로 방령(方領)과 직령(直領)이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복건의 주(注)를 다시 고찰하였으며 먼저, 어린아이가 옷을 뒤집어 입은 것과 같은 형태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유물이 없어 정확한 형태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에 금(衿)은 령(領)이 곧게 내려간 것이라 한 것을 토대로 령(領)과 금(衿)은 하나로 이어진 형태로 추측되며, 금(衿)은 곧게 내려간 형태라 하였으므로 긴 직사각형에 여미어지지 않는 형태로 추측되어 진다.

이러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복건의 주(服虔)의 주(注)까지만 해석하는데 그쳤지만, 복건의 주(注) 뒤에 있는 진작(晋灼)의 주(注)를 살펴보면,

“晋灼曰：今之妇人直领也。繡爲方領，上刺作黼黻文。”

王莽傳曰‘有人着赤纁方領.’方領，上服也.”

“진작(晋灼)이 말하기를 ‘오늘날 여성의 직령이다. 방령 위에 보불문(黼黻文)을 수놓았다. 『왕망전(王莽傳)』에서 이르기를 누군가 수놓은 적색 방령을 입고 있다, 이에 ‘방령은 상복(上服)이다.’”

라는 기록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이동아, 2014b).

진작(晋灼)이 언급한 내용으로 짐작해보면, 여성 의복 중 직령이라는 의복이 있었으며, ‘방령 위에 보불문(黼黻文)을 수놓았다’는 기록을 통해 직령의복의 깃을 방령이라 지칭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전한서(前漢書)』 권99중 왕망전(王莽傳)에 “又侍郎王盱見人衣白布單衣，赤纁方領，冠小冠，立于王路殿前.” 나오는 기록으로 통상 보불문(黼黻文)은 예복(禮服)의 중의(中衣)에 수를 놓게 되므로, 방심곡령을 지칭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장말원(1984)의 『한조복장도양자료(漢朝服裝圖樣資料)』에 한대(漢代) 복식의 의령(衣領)에 대하여 “방령(方領)은 곡령(曲領)과 용도가 비슷하였고, 역시 중의(中衣) 곁에 들렸다. 곡령(曲領)은 굽은 모양이고, 방령(方領)의 형식은 네모진 모양이었으며, 이것들의 용도는 모두 언령(假領)의 용도와 똑같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종의 영진(領巾)의 형태로 방령(方領)은 존재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후한서(後漢書)』에 유학자의 의복이었다는 기록, 진작(晋灼)의 주에 ‘오늘날의 여성의 직령이다.’라고 하였으며, ‘방령은 상복(上服)이다’와 『한서신주(漢書新注)』에도

“方領：婦人上服之方領。”

“방령, 여성의 덧 입는 의복이 방령이다.”

를 통해 본 연구자는 당시의 여성의 덧 입는 직령의복이 곧, 방령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윤만이호한묘(尹灣二號漢墓)에서 출토된 목관문자에 ‘直領一領’이라 하였는데, 설명에 직령은 한대(漢代) 여성의 복식이라 하였으며, 『광야(廣雅)』 권7 석기(釋器)에 “直衿謂之幅.”의 소(疏)에 “又曰：袒飾，裋明，釋，袍，襦，長襦也.”라는 기록에 직령의복의 이름과 이는 장유(長襦)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바이다.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복건(服虔)이 말한 ‘령(領)이 곧게 내려간 것이다’라고 한 것을 여밈의 형태 중 대금형으로 보았을 때 한대의 방령은 장사마왕퇴 12호묘에서 출토된 목용(木俑)에서 나타난 형태로 추측된다(그림 6). 이처럼 덧 입는 대금형의 여성복식으로는 비갑, 배자등이 있으며, 비갑이나 배자는 한대의 방령과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그림 6> 雕衣木俑-西漢：湖南長沙馬王堆一二號墓出土. 출처：中國織繡服飾全集 3 (2004), p.100.

또한 한대(漢代)에서 북송(北宋)까지의 중국 소설집인 『태평광기(太平廣記)』 몽칠(夢七) 형봉(邢鳳)에도 “即其寢而晝偃，夢一美人，自西檻來，環步從容，執卷且吟，爲古粧，而高鬢長眉，衣

方領. 綉帶. 被廣袖之襦. 鳳大悅曰. 麗者何自而臨我哉.” 여성이 방령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외에 방령에 대한 기록은 『전한서(前漢書)』 권76 조윤한장양왕전(趙尹韓張兩王傳)한연수전(韓延壽傳)에 “延壽衣黃紬方領”라고 하였으며 이에 진작(晉灼)은 “以黃色素作直領也”라고 하였다. 이 또한 방령은 직령이라 불리웠던 의복과 연관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후한서(後漢書)

『후한서(後漢書)』 卷 79 「유림열전(儒林列傳)」 第 69上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服方領，習矩步者，委它乎其中. 注：方領. 直領也. 委它，行貌也 委它，行貌也. 委音于危反. 它音以支反.”

“건무 5년(29)에 태학(太學)을 설립하고 고전의 방식과 제도를 본받아, 변(邊), 두(豆), 방패, 도기가 열에 맞추어 갖추어 지고, 방령(方領)을 입고 굽자와 같은 걸음걸이를 익히는 자들은 태학 안에서 공손히 순종하였다. 각주에 ‘방령은 곧 직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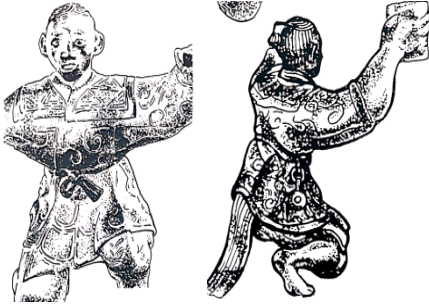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숙아(2010c)는 ‘방령구보(方領矩步)’가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면서 방령(方領)은 곧 직령(直領)과 같은 것으로 직령(直領)을 앞에서 교차시켜 입었을 때 깃이 저절로 모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홍나영(1999c)의 경우는 방령(方領)이 여러 의미들 중에서도 직령(直領)과 같은 의미이며, 여미어 입었을 때 깃이 교차하면서 방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방령(方領)을 직령(直領)의 다른 표현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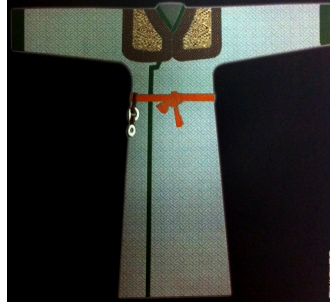
그러나 본 연구자가 고찰한 『후한서(後漢書)』 卷 79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대한 이현(李賢) 주(注)를 보면,

『後漢書』 卷 79上 儒林列傳：“李賢 注：<前書音義> 曰

：頸下施衿領正方，學者之服也. 則漢時的“方領”是上等之服，也是儒者之服.”



<그림 7> 등을 든 동인(좌), 복원도(우)- 전국시기 河南省金村出土
출처 : 中國織繡服飾全集 3 (2004), p.33.
周錫保 (1986). 中國古代服飾史, p.68.



<그림 8> 방패를 든 병사서한-삼서성 함양 양가만 출토. 출처:中國服飾通史. (2002)

“전서음의(前書音義)에서 이르기를, 목 아래 깃(衿)을 정면으로 펼치는 것이 배우는 사람의 옷이다. 한나라 시대의 방령은 고급 옷으로, 유학자의 옷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목 아래 옷고름을 정면으로 펼친다.’를 선행연구에서는 주자(朱子)가 제시한 형태로 고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한서(前漢書)』의 복견(服虔) 주(注)에 ‘령(領)이 곧게 내려간 것이다.’ 즉, 직선의 대금형의 의미와 같다고 판단되어진다.

한편, 이현(李賢) 주(注)에 ‘유학자의 옷’이었다 하였는데 『후한서(後漢書)』 「마원열전(馬援列傳)」에도

“勃衣方領，能矩步，辭言嫺雅。”

“방령의 옷을 입고 바르게 걸음을 걸으며, 언사가 우아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 방령(方領)은 여성의 덧입는 상의류 이외에 유학자의 의복으로도 입혀졌던 것을 알 수 있다.

3. 예기정의(禮記正義)

『예기(禮記)』 심의편에 대해 『예기정의(禮記正義)』 권59 · 심의(深衣) 제39, 정현(鄭玄) 주(注)를 보면

“衿，交領也。古者方領，如今小兒衣領。”

“깃은 교령이다. 옛날의 방령은 오늘날의 어린 아

이의 옷깃과 같다.”

라고 하였다. 여기서 깃은 교령(交領)이라 하였는데 한대(漢代)의 령(領)은 모두 아래로 향하여 가슴 앞에서 교차하는 형태로 이는 공영달(孔穎達)의 소(疏)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대(漢代) 령(領)의 형태를 생각하면 선행연구에서처럼 주자가 제시한 형태로도 생각되어 질 수 있으나 주대의 출토품에 나타난 네모난 사각형의 방형(方形)에 여밈은 교령(交領)이며, 정현(鄭玄)이 언급한 당시의 어린아이의 의복 또한 그 형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예기정의(禮記正義)』 권59 · 심의(深衣) 제39, 공영달(孔穎達)소(疏)에

“注 「古者方領」 °正義曰：鄭以漢時領皆鄉下交垂，故云「古者方領」，似今攤咽，故云「若今小兒衣領，但方折之也」”

“한나라 때에는(정현) 옷깃을 모두 아래를 향해 겹쳐서 드리우므로 ‘옛날의 방령은 오늘날의 옹인(攤咽)과 같다.’”

고 하였다. 그러나 공영달(孔穎達)이 언급한 옹인(攤咽) 또한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주석보(周錫保, 1986c)는 <그림 7>과 같은 형태를 옹인(攤咽)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림 7>은 전국(戰國)시기의 하남성 금촌(河南省金村)에서 출토된 동인상으로 옷의 앞면에는 큰 띠를 매고 있고 뒤에는 리본처럼 늘어져

있는 복식을 입고 있다.

깃의 형태를 살펴보면, 깃 둘레에 네모난 장식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일컬어 ‘옹인(擁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상복(喪服)의 깃 형태와도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식천 아래에는 <그림 4, 5>와 같이 직령(直領)의 깃이 가슴부분에서 완전히 꺾이어 내려가는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주석보(周錫保)가 언급한 옹인(擁咽)의 형태가 <그림 7>이라면 서주시기의 출토인물상에 나타난 방령형태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장식천 아래 의복이 교령으로 한대의 방령은 정현(鄭玄)이 말한 ‘겹은 교령’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주자가 제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4. 출토품에 나타난 네모난 형태의 방령(方領)

한대(漢代)에도 네모난 사각형의 방령(方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군복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8)(陈高华, 徐吉军, 2002). 이후의 후대의 기록과 회화자료등을 통해서도 방령은 군복과 연관이 된 것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과 및 요약

고대 주대(周代)의 방령(方領) 형태는 『예기(禮記)』의 기록에 따르면, ‘곡겹여구이응방(曲袷如矩以應方)’이라는 기록에서는 심의의 곡겹(曲袷)이 ‘방(方)’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주시기 출토 인물상에 나타난 의복의 깃은 네모난 사각형 형태에 대금형이 아닌 여미어 입은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방령(方領)은 네모난 사각형에 여밈은 교령(交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방령(方領) 형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문헌으로는 송대(宋代) 주자(朱子)가 제시한 심의(深衣)의 곡겹(曲袷)에 대한 형태이다. 이는 직령(直領)의 깃에 여밈을 깊게 하면 자연스럽게 뒷목둘레가 모가 난 형태로서, 도본(圖本)을 보면, 목둘레선이 마름모 꼴 형태

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네모난 사각형의 방령(方領) 형태 이외에 주자(朱子)가 제시한 방령(方領) 형태에 대하여 한대(漢代)의 기록을 통해 그 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 주자(朱子)가 제시한 형태 한대(漢代)의 기록 중 『후한서(後漢書)』 「유림열전(儒林列傳)」 주(注)에 ‘방령(方領)은 곧 직령(直領)이다.’와 한대(漢代)의 정현(鄭玄)이 말한 ‘겹(袷)은 교령(交領)이다.’라는 기록을 통해 한대(漢代)의 방령(方領) 형태 또한 주자(朱子)가 제시한 형태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전한서(前漢書)』 卷 53 「경십삼왕전(景十三王傳)」의 복건(服虔) 주(注)와 『후한서(後漢書)』 「유림열전(儒林列傳)」, 「마원열전(馬援列傳)」 주(注)에 ‘방령(方領)은 곧 직령(直領)이다.’까지만 고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춘추전국시기(春秋戰國)의 출토품에서 y 형태로 가슴부분에서 완전히 꺾이어 내려간 것을 중국의 학자 주석보(周錫保)와 화매(華梅)는 ‘방령(方領)’ 또는 ‘구령(矩領)’으로 지칭한 것을 토대로 방령(方領)은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형태 외에 또 다른 형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에 한대(漢代)의 기록을 다시 고찰한 결과 『전한서(前漢書)』 卷 53 「경십삼왕전(景十三王傳)」의 복건(服虔) 주(注) 뒤에 진작(晋灼) 주(注), 그리고 『한서신주(漢書新注)』, 『후한서(後漢書)』 卷 79 「유림열전(儒林列傳)」의 이현(李賢) 주(注)등을 통해 한대(漢代)의 방령(方領)은 다른 형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대의 기록을 중심으로 고찰 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한서(前漢書)』 卷 53 「경십삼왕전(景十三王傳)」의 복건(服虔) 주(注)에 “목 아래에 깃(衿)은 령(領)이 곧게 내려간 것이다.”라는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직선의 긴 직사각형 형태(직사각형=‘방’)에 대금형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며, 복건 주 다음에 진작(晋灼)은 방령(方領)은 여성의 직령(直領)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 직령(直領)은 하나의 의복 명칭이기도 하였는데 진작(晋灼) 주(注)의 마지막 부분에 방령은 상복(上服)이라 하였으며, 『한서신주(漢書新注)』에는 ‘방령, 여성의 덧 입는 의복이 방령이다.’라

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방령(方領)은 여성들이 입는 덧입는 대금형 의복으로 판단되어진다.

둘째, 춘추전국시기 출토품, 정현(鄭玄) 주(注) “교령(交領)”이라는 표현, 그리고 공영달(孔穎達) 소(疏)에 “한대(漢代)의 의복은 아래를 향해 겹쳐서 드리운다”를 통해 방령(方領)은 교령(交領)으로 가슴에서 깎이어 내려간 형태 또는 옹인(擁咽)과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도 추측되어진다.

셋째, 『후한서(後漢書)』 卷 79 「유림열전(儒林列傳)」에서 방령은 유학자의 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후한서(後漢書)』 卷 79 「유림열전(儒林列傳)」의 주(注)에 방령(方領)이 곧 직령(直領)이라고 하였던 것은 이현(李賢)의 주(注)에 한대(漢代)의 방령은 목 아래 옷고름을 정면으로 펼친 것이 배우는 사람 즉, 유학자의 옷이라 하였으며, 고급옷이라고 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선행연구에서처럼 주자가 제시한 형태가 아닌 복견(服虔)이 언급한 형태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여성의 덧입는 의복 외에 유학자의 옷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후한서(後漢書)』 「마원열전(馬援列傳)」에도 유학자의 옷이라 하였다.

따라서 한대(漢代)의 방령(方領)은 1) 대금형의 직령 깃을 지칭 2) 여성의 덧입는 상의류 3) 유학자에게는 곧고 바름을 나타내는 의복 4) 높은 계층에서 방령 부분에 화려하게 수를 놓음 5) 교령의 옹인과 같은 형태 6) 군복(네모난 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으며, 남녀 여러 계층에서 입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이처럼 방령(方領)은 한대(漢代)의 기록을 통해 새로운 형태를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와 같이 방령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회화자료, 출토품 또한 원대이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방령(方領)에 대한 연구는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변화한 방령(方領)정확한 형태, 착용자, 변화과정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미정. (2009). *17c 방령의 구성법과 재현품을 중심으로 : 이응해장군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현. (2003). *호복, 실�크로드의 복식*. 서울: 민속원, 30.
- 김숙아. (2010a). *조선시대 방령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아. (2010b). *조선시대 방령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아. (2010c). *조선시대 방령의 형태 및 바느질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아. (2014a). 조선시대 방령의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17(1), 165-178.
- 이동아. (2014b). *方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주, 최은수. (2007). 조선시대 방령의 확산과정과 그 의미. *한복문화*, 10(2), 173-191.
- 장말원, 김영숙 (역) (1984). *한조복장도양자료*. 서울: 동양복식연구원, 40.
- 홍녀영. (1999). 後短方領半臂에 관한 고찰. *복식*, 44호, 117-129.
- 周錫保. (1986a). *中國古代服飾史*. 북경: 中國戏剧出版社, 70.
- 周錫保. (1986b). *中國古代服飾史*. 북경: 中國戏剧出版社, 65, 70.
- 周錫保 (1986c). *中國古代服飾史*. 북경: 中國戏剧出版社, 68. (정현이 ‘옛 방령은 한나라 때의 옹인(擁咽)과도 비슷하고, 아이의 옷깃을 각지게 접은 것과도 비슷하여, 목 아래에 금(衿)을 하나 더 달았다.’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 陈高华, 徐吉军. (2002). *中国服飾通史*. 中国纺织出版社.
- 華梅, 朴聖實, 李秀雄 (역) (1992). *中國服飾史*. 서울: 경춘사.
- 常沙娜 編. (2004). *中國織繡服飾全集3-歷代服飾卷(上)*. 天津人民美術出版社.
- 『禮記』
- 『前漢書』
- 『後漢書』

『禮記正義』
『太平廣記』
『朱子大全』
『禮記集說』
『深衣考』
『漢書 新注』